

벤투 감독, 월드컵 최종예선 홈 2연전 나설 26명 공개

햄스트링 부상 징후 손흥민 회복이 관건

9월 2일 이라크, 7일엔 레바논전
최정에 멤버들로 엔트리 꾸렸지만
손흥민 22일 조기코치때 다리 절뚝
예전 다쳤던 부위, 정밀진단 필요
이강인 대신엔 제공권 좋은 조규성



한국축구가 최정에
진용으로 10회 연속 월
드컵 본선을 향한 장도
에 오른다.

축구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은 23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열어 9월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홈 2연전에 나설 태극전사 26명을 공개했다. A대표팀은 9월 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라크와 1차전, 7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차전을 갖는다.

한국은 최종예선에서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A조에 편성돼 치열한 경쟁이 예고됐다. 벤투 감독은 초반 흐름이 레이스 전체를 좌우한다고 판단. '킥틴'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 김민재(페네르바체SK) 등 해외파를 대거 호출했다. 벤투 감독은 "어렵고 힘든 최종예선이 되겠지만 아름다운 순간이 될 것이다. 스스로와 그간의 준비를 믿고 최선의 결과를 내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햄스트링 부상 의심' 손흥민도 뽐냈지만
손흥민은 A대표팀의 핵심이다. 명단 발표 전날(22일) 열린 울버햄턴과 2021~2022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원정 2라운드(1-0 토트넘 승)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워밍업 도중 불편함을 느낀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뒷근육) 부위에 테이핑을 하고 선발 출격한 그는 후반 27분 해리 케인과 교체됐다. 적극적인 스프린트와 슛 시도 등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으나 벤치로 돌아가며 다리를 절뚝거리며 우려를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한국 경기 일정(한국시간)

날짜	상대	홈/원정	비고
2021.9.2	이라크	홈	
9.7	레바논	홈	원정→홈 변경
10.7	시리아	홈	
10.12	이란	원정	
11.11	UAE	홈	
11.16	이라크	원정	
2022.1.27	레바논	원정	홈→원정 변경
2.1	시리아	원정	
3.24	이란	홈	
3.29	UAE	원정	

쌌다. 토트넘 누누 산투 감독은 "경기를 못 펼 상태는 아니다"면서도 "검진이 필요하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벤투 감독은 "따로 보고 받은 건 없다. 컨디션이 좋고 문제없는 것으로 안다"며 손흥민을 명단에 올렸지만 찜찜함이 남는다. 왼쪽 햄스트링은 3월에도 다친 부위다. 전치 2주 이상의 소견이 나오면 구상은 꺾인다. 이 경우 벤투 감독의 "컨디션이 좋다"는 발언은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

●이강인 없고, 조규성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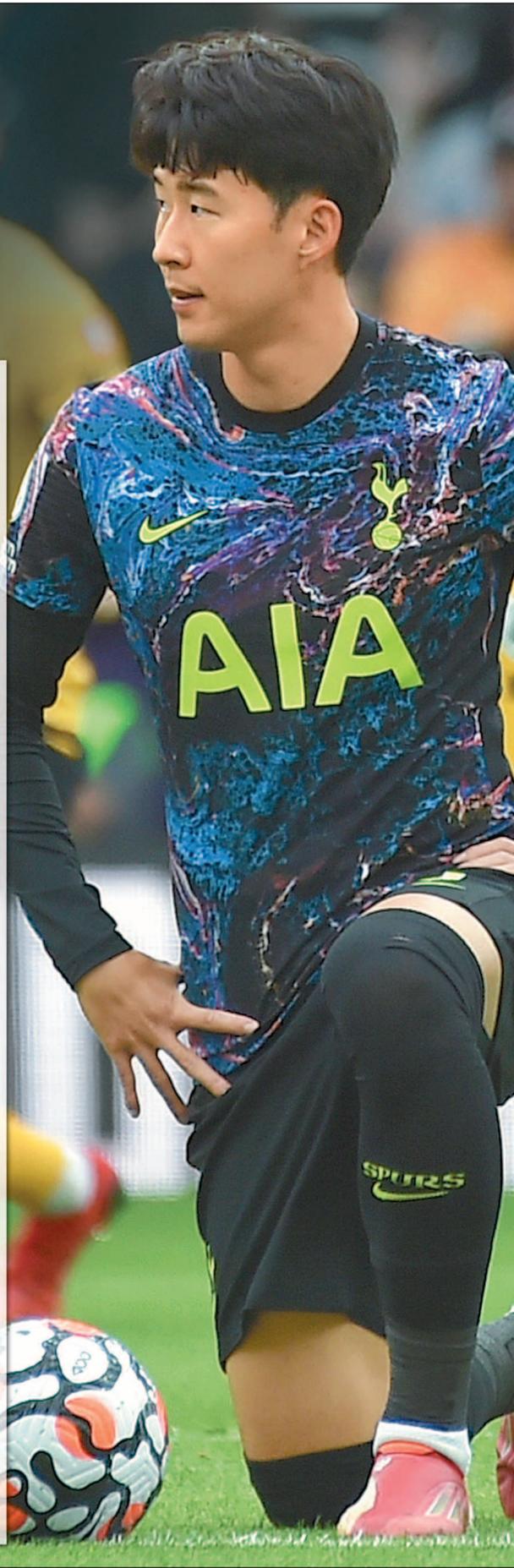
유럽파가 대거 발탁됐지만 2019년 9월부터 꾸준히 승선한 이강인은 제외됐다. 그에 반해 2020도쿄올림픽 최종엔트리에 낙마한 조규성(김천 상무)이 뽑혔다. 벤투 감독은 "기술과 제공권이 좋다"고 높이 평가했다.

또 다른 특징은 국내파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K리그1(1부) 울산 현대 의존도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6월 2차 예선에서 울산에서 5명을 차출해 홍명보 감독을 당혹스럽게 했던 벤투 감독은 최종예선에선 원두재, 이동준, 김태환을 빼고 3명(조현우·홍철·이동경)만 호출했다. 울산의 지분을 줄인 이유를 "전략적 판단"이라고 전한 벤투 감독이 주목한 팀은 K리그2(2부) 김천이다. 조규성 외에 골키퍼 구성윤, 박지수, 정승현 등이 이름을 올려 가장 많은 태극전사를 배출한 팀이 됐다.

▶ 관련기사 6면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축구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은 9월 23일 열린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홈 2연전에 나설 26명의 태극전사를 23일(한국시간) 공개했다. 손흥민이 22일 EPL 울버햄턴전 종료 후 부상 우려를 드러냈지만 벤투 감독은 명단에서 대표팀 주장을 포함시켜 눈길을 끌었다. 울버햄턴(영국) | AP뉴시스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선두독주 KT,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원동력

- 1 리그서 가장 강력한 5명의 선발
- 2 힘 넘친 불펜·찬스에 강한 타선
- 3 선취점 내준 경기서도 승률 1위
- 4 이강철 감독의 팀 빌딩 완성단계



KT 위즈는 시즌 중반 잡은 선두 자리를 줄곧 지키고 있다. 4주의 올림픽브레이크에도 기세가 꺾이지 않아 독주체제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투타 전력 모두 탄탄하기에 만들어진 결과다. 리그에서 가장 강한 5선발 로테이션이 최대 무기이지만, 선발진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더 의미가 있다. 위기에 서도 이기는 법을 알고 있다.

KT는 22일까지 선발 평균자책점(ERA) 3.82로 리그 3위다. 선발진의 소화이닝은 경기당 평균 5.53으로 1위. 가장 오래 버티며 훌륭한 ERA를 기록하고 있으니 성적이 좋은 것도 당연하다. '4일턴 괴물' 오드리사머 데스파이네를 필두로 윌리엄 쿠에바스, 고영표, 배제성, 소형준이 합작한 결과다. 쿠에바스가 개인사로 빠졌지만 대체선발 엄상백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선발진의 퀄리티스타트(QS·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 투구)도 43차례로 가장 많다. 현재 페이스라면 72회 QS가 가능하다. 10개 구단 체제 이후 역대 가장 많은 2019년 두산 베어스(81QS)의 기록도 노려볼 만하다. 그런데 선발투수 QS시 승률은 0.762(32승10패1무)로 리그 3위다. 팀 승률이 1위이고 가장 많은 QS를 기록 중이지만 이 지표에선 LG 트윈스(0.781), 삼성 라이온즈(0.769)에 약간 밀린다.

그럼에도 팀 성적이 폭발적인 것은 선발진 이외의 강점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KT는 올 시즌 선제실점시 승률 0.452(19승23패1무)로 1위에 올라있다. 선발투수가 1, 2점을 먼저 내줘도 얼마든 뒤집을 자력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다. 선발투수 QS 실패시 승률도 0.442(19승24패)로 2위라는 게 또 다른 증거다.

선발진이 가장 많은 이닝을 책임지니, 자연히 불펜은 리그에서 가장 적은 이닝을 맡았다. 이닝 부담이 덜한 상황에서 자신의 힘을 온전히 쏟으니 결과가 좋다. 시즌 초 흔들리는 듯했던 주권도 16홀드를 챙겼다. KBO리그 역대 2호 3년 연속 20홀드 기록이 눈앞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팀 세이브 기록을 새로 쓴 '클로저' 김재윤도 24세이브로 순항 중이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사직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11년 만에 'LPGA 메이저 우승 제로'... '여자골프 강국' 코리아의 위상이 흔들린다 ▶ 2면



KMGM
HOLD'EM & EVENT PUB

KMGM 홀덤 이벤트룸 가맹점 모집

30평미만으로 창업 가능 / 1억미만 소자본 창업 / 업종변경가능

외식 유통 프랜차이즈 KMGM에서
미래를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창업 상담 : 1644-7861

K-SPOBET

NEW 신개념 베링펌 프랜차이즈 총판모집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배구 · 홀덤 · 전종목

KSPOBET과 함께!
누구나 할 수 없는 창업이 성공한다!

문의 전화 : 010-8311-8411